

2020 새 설계

송귀근 고흥군수

“소득향상·지역발전·군민행복 세마리 토끼 잡겠다”



“군민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수축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고흥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고흥의 미래비전을 실현시켜나가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군수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등 첨단 농업 기업을 보급하면서, 마늘·양파 우량 신품종 공급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군수는 이어 “수산업에서는 해조류·패류 양식의 현대화 시설지원 확대로 수산 종자 배양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축산업에서는 고흥 한우 우수혈통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친환경적인 축산시설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마케팅 강화를 위해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을 앞당기고, 고흥 농·수·특산물의 대형마켓 입점과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광객 1000만명을 목표로 관광 산업이 군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정책도 마련했다.

첨단농업 육성·친환경축산시설 확대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치매 예방

도시민 유치 귀향·귀촌 3000호 달성

송 군수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고흥 출신 유명 인물의 관광 자원화에 박차를 가하고, 대규모 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광콘텐츠 강화를 위해 ‘고흥 유자 석류 축제’를 국내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고흥 해양 레저스포츠와 힐링 치유 관광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군수는 “어르신 여가시설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치매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며

“장애인과 여성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확대하면서 이동과 청소년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인구 유입 정책과 관련 송 군수는 “고흥 출신 청년의 귀향 정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운영해 도시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명품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올해 귀향·귀촌 3000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이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갖춰 나가겠다”며 “면 단위 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읍소재지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군민의 생활체육, 문화시설 이용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편리한 교통과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교차로와 간선도로·터미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응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민 화합을 위한 복안도 제시했다.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의 정착과 군민 소통 창구의 운영, 주민 생활 밀착형 시책 전개로 군민을 생각하는 군정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송 군수는 “아직도 부족한 공직자의 친절과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군민에게 당연한 고흥

2020년 주요 사업은

-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한 ‘농수축산업 집중 육성’
- ▲해조류 및 패류 양식 현대화 시설 확대
- ▲수산 종자 배양 원천 기술 확보
- ▲고흥 한우 우수혈통 생산 기반 확충, 친환경 축산시설 확보
- ▲인구 유입 정책으로 도시민 유치 인구 감소를 줄이기
- ▲고흥 출신 인물 자원화, 대표축제 개발 및 해양레포츠·힐링 치유 관광

공직자상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바람이 불어도 썩지는 썩을 띄우고, 고흥의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했다”며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꽃과 열매를 군민들께 드리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고흥군, 사업발주 전 사전계약 심사 45억원 ‘예산 아꼐다’

작년 분야별 사업 976건 3449억원...과다책정 단가 등 조정

고흥군이 지난해 사업발주 전 계약 심사 등을 통해 4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에 따르면 2019년 분야별 사업 976건 3449억원에 대한 사업 및 설계변경 발주 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특정감사 등 사전심사로 군민의 세금으로 짜인 예산 45억원을 절약했다.

계약심사는 537건 1125억원의 원가 산정, 설계서, 법정경비 요율 등 적정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과다책정 단가, 불필요 공종, 현장 여건 부합 시공 등이 드러나 심사·조정을 통해 37억원의 낭비 요인을 제거했다. 이는 2018년 절감액인 23억 원에 비해 62%가 증가한 금액이다.

일상감사는 357건 1791억원의 사업추진과 집행, 절차, 목적 외 사용 등을 검토해 6억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또 감사를 통해 행정 낭비 및 시행착오를 막고 부실 요인을 예방해 결과적으로 품질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었다.

특정감사는 82건 533억 원에 대한 설계 변경 신청 타당성과 추진과정을 검토해 2억 원의 예산을 줄였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별도 운영하던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부서의 일원화로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2월 ‘2020년도 계약심사 업무편람’을 펴내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발주부서 요청 시 미흡한 사항과 조정사항을 전파·정보공유 등을 통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귀농인의 따뜻한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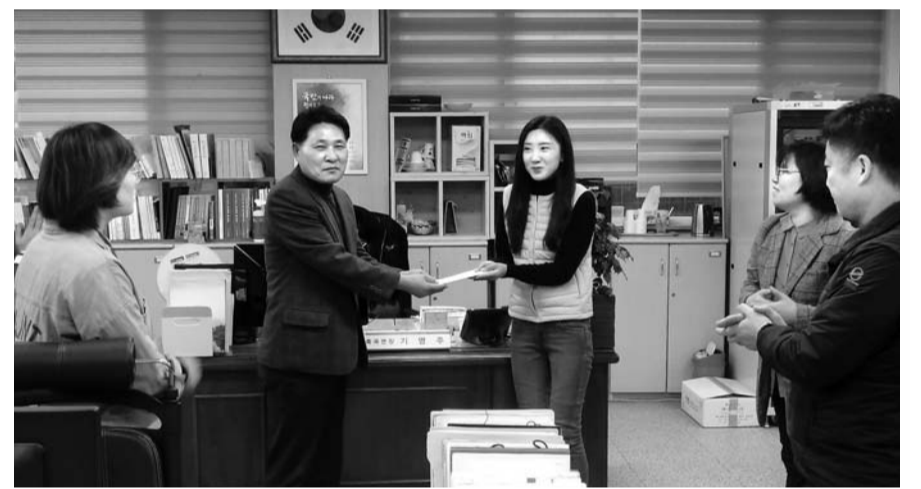
곡성 죽곡면 1인방송 이주은씨

방송수익금 등 100만원 ‘쾌척’

곡성군 죽곡면에서 ‘주은라이프’라는 1인 방송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 이주은 씨가 지난 6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방송 수익금과 팬들의 마음을 모아 100만원을 지역 면사무소에 기부해 화제다.

이씨는 이날 죽곡면사무소를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곡성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사진>

지난해 여름 귀농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꿈을 가지고 도사에서 곡성으로 이사했으



며 낚시·텃밭 가꾸기 등 평범한 농촌 생활을 콘텐츠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주은씨는 “곡성에서 생활하면서 지역

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죽곡면민이자 방송 크리에이터로서 즐겁게 귀농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구례군, 농촌진흥 신기술보급 시범·지원을

올 28개 분야 총사업비 24억원 투입 추진

구례군이 2020년에 추진할 농촌진흥 신기술보급 시범·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사업을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 받으며 규모는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23억 9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식량 작물 분야에 시설감자 기반조성 시범 등 5개 사업 15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기술 시범과 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등 10개 사업 13개소 ▲인력육성 및 생활지원 분야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등 4개 사업 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8개 사업 145개소 등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제 거주지가 구례군으로 돼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등으로 신기술 시범 요인을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인근 농가에 파급해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꼭 돼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홈페이지와 마을 이장에게 배부한 사업신청 안내서를 참고해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방문, 상담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보성차밭 축제’ 지역경제 훈풍되다

관광객 28만명 다녀가 입장권 수익만 2억여원

보성군은 ‘제17회 보성차밭 빛축제’에 28만명이 다녀가며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 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빛축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8만명이 방문, 입장권 판매로만 2억여원의 수익을 거뒀다.

보성차밭 빛축제는 2000년 세계기네스 북에 등재된 밀레니엄 트리로 시작한 이후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겨울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는 효자 축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번 빛축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6.5m 규모의 버블트리, 3D 상드리에가 인기를 끌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달 조명,

만송이 LED 차 꽃, 빛의 놀이터, LED 숲 등도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또 소망카드 달기와 소망등 만들기 체험은 연말연시 빛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 큰 인기를 끌었다.

새롭게 선보인 빛 컨테이너는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해 호평을 받았다.

매주 금·토요일에 진행된 버스킹 공연 등도 성황을 이뤘고, 식당과 농특산물 판매장 등으로 꾸러진 문화장터는 보성의 겨울철 별미를 맛보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